

전남대 '반도체·AI·바이오'로 지역산업 생태계 이끈다

전남대가 개교 70주년, 창학 113년을 맞아 탄탄한 연구력과 풍부한 교육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역산업 생태 지도의 변혁을 이끌고 있다. 전남대는 광주와 전남의 산업육성 방향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모빌리티, 우주항공 등으로 다양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걸맞은 인재 양성과 지식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인공지능 인력 양성

전남대는 '반도체 개발 지능화사업단'을 개설하고, 반도체-AI 융합 혁신 인재 양성에 나섰다.

사업단은 AI 기반의 반도체 산업을 위한 맞춤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다학제, 다조직 간 융합 교육으로 맞춤형 석박사 연구인력을 배출한다. 이들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특화단지에서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산업계의 변화와 사회발전은 고등교육 혁신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전남대는 전국 6개 대학과 함께 AI 교육체제 혁신과 공유를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AI 전문인력, AI+X 융합인력을 양성하는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예산 102억 원)을 벌이고 있다.

바이오·의약 신산업 발굴

전남대는 정부 정책에 맞춰 바이오·의약 분야 신산업 발굴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하기로 했다.

면역치료의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사업을 유치했다. 2024년까지 면역치료제 연구개발, 전임상·임상시험, 제품화까지 면역치료제 개발의 모든 주기를 윈스톱 지원한다.

또 초대형 국책연구사업인 '마이하트 플랫폼 기반 심부전 제어 및 치료기술 개발연구'에서는 임상데이터를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한 허혈성 심부전 예측과 심부전 치료제의 검증 및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특화산업 육성

전남대는 광주광역시, 전남도와 15개 지역대학, 114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사업'(예산 683억 원)을 총괄하면서 지역특화산업인 에너지신산업과 미래형 운송기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기술개발, 기업지원에 나서는 등 특화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전남대-광주과기원-한국에너지공대가 '트라이앵글 연구개발(R&D) 벨트'를 구축한다면 이는 단순한 지방대학 살리기 수준을 넘어 광주전남의 산업생태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가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 전남대 전경 2 정성택 전남대 총장



진리로이룬 70년,
창조로이룬 100년

다양함의 자유로움 진보의 시대

진리를 밝히고, 도전으로 창조하며, 봉사하는 사람

2023학년도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2. 9. 13.(화) 09:00 ~ 9. 17.(토) 18:00
- 홈페이지: <https://www.jnu.ac.kr>
- 문의: 062-530-4731~4734(전남대학교 입학과)

